

인구 고령화 · 과소화 해결 '함께'

농어촌공 전북본부-김제시, 농촌협약 사업 추진 '맞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10일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김제시가 2021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날 협약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김제시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농촌협약 주요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 시설, 복지, 보건·의료, 문화 등에 대한 집중지원과 그동안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복합 연계해 김제시의 전반적인 농촌서비스 수준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한단계 향상 시킬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

30분내 보건·교육 기초 생활서비스 제공 ▲60분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제공 ▲5분 이내 응급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공동목표인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김제시는 지난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선정 되어 총사업비 436억 원을 2022~26년 5년간 취약지역에 투입하게 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뜻을 한데 모아 서로의 힘을 합쳐 인구감소와 고령화 참세기에 있는 지역농촌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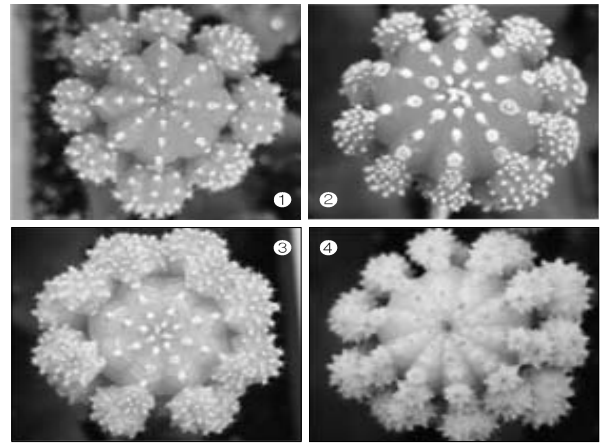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김제시는 10일 농촌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주민이 살기 좋은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농촌협약만 아니

라 농촌재생 등 신규정책사업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1.원교 G1-327 2.원교 G1-328 3.원교 G1-329 4.원교 G1-333

더 화려한 '젓묵선인장' 이 떴다

농진청, 원교G1-328 등 새로 육성 8계통 '첫 선'

'젓묵선인장'은 색이 다른 두 선인장을 하나로 붙여 만든 선인장으로, 꽃처럼 화려하고 꽃보다 오래가는 장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미국과 유럽 시장을 겨냥해 더 화려한 젓묵선인장 계통을 개발하고, 11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에서 열리는 평가회를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선인장은 8계통으로 색이 다양하고 잘 자라는(증식력) 등 국내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원교G1-327', '원교G1-330' 계통은 진한 분홍색으로 증식력이 우수하다.

중앙 부위까지 자구(어린 선인장)가 생성되며, 강한 빛에도 오랫동안 색을 유지한다. '원교G1-328', '원교G1-331' 계통은 진한 붉은색으로, 균형미가 우수하다.

밝은 형광의 느낌을 주며 증식력이 우수해 수출 주력품종으로 기대된다.

'원교G1-329', '원교G1-332' 계통은 주황색으로, 색이 선명하며 조숙이 비교적 단단해 수출성이 우수하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색상으로 네덜란드 등 현지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원교G1-333', '원교G1-334' 계통

은 노란색이다.

'원교G1-333'은 자구에 약간의 녹색이 더해져 특이한 느낌을 준다. 울퉁불퉁한 능마디 2개 이상의 자구가 생길때 증식력이 매우 우수하다.

'원교G1-334' 계통은 밝은 노란색을 띠며, 조직이 단단해 수출성이 우수하다.

농촌진흥청은 농민과 수출업체 관계자로부터 새로 육성된 계통의 기호도를 평가받아 우수한 점수를 받은 계통을 수출용으로 선별해 선도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김원희 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계통은 시장 맞춤형으로 육성돼 주력 시장인 미국과 네덜란드 수출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외에서 사랑받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보홍', '연빛', '이황' 등 나라별로 선호하는 다양한 색상의 122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2020년 미국, 네덜란드 등으로 432만2,000달러를 수출했다. /김윤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디지털 뉴딜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산식품산업과 공사의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뉴딜 대응 농수산식품 분야 혁신 전략 공유

농수산식품유통공사 CEO 혁신자문위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0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차 디지털 뉴딜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열고 농수산식품산업과 공사의 디지털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6월 발족한 디지털 뉴딜 CEO 혁신자문위원회는 공사가 그동안 구축해온 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수산식품산업의 디지털 뉴딜 확대를 위해 기관, 학계, 산업 등 다양한 전문

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에서 수립한 디지털 혁신 전략에 대해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와 함께 대국민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농수산식품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사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표준화에 앞장서 빅데이터 체계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공사는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KADIX) 구축사업을 비롯해 공공급식, 온라인 판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등 민간분야와 협력하면서 농수산식품산업 주요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주도해 오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데이터 주도권 경쟁에 대비해, 공사는 산재해 있는 농수산식품산업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더 나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3D프린터 지원기기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규)은 지난 9일 전북은행 본점 3층 회의실에서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기술인 3D프린팅 활용을 통한 도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돕기 위해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 프린터를 지원하고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를 선정해 각 2대씩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규 이사장, 전북은행 서한국 은행장,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중구 단장, 신도리코 김희수 이사, 3D프린터를 지원 받는 각 학교 담당교사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지원한 3D프린터는 인체에 무해한 PLA필라멘트를 사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전달식에 이어 신도리코 이희성 선임의 3D프린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와 군산대 산학협력단 김성하 부장의 3D 프린터 활용법 및 모델링 경진대회 참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참여 교사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윤상 기자

중기 협동조합 회원사

비회원보다 12.8명 더 고용

경영성과 비교분석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과 비회원의 경영성과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 1075개사와 비회원 5115개사의 2017~2020년 기간 중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비교군인 비회원 기업 5115개사는 회원과 업력, 매출 업종 및 소재지역이 유사한 기업으로 구성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사는 2017~2020년 기간 중 비회원보다 평균적으로 12.8명을 더 고용했으며, 급여 또한 평균 0.7백만원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합원의 평균 부가가치(31.5억 원)는 비조합원(16.3억 원)보다 15.2억 원 높았고, 순이익률은 2.5%로 비조합원(1.8%)보다 0.7%p 높았으며, 총자산규모는 68.8억 원으로 비조합원(66.3억 원)보다 2.5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친회 중기중앙회 KBIZ중소기업연 구소장은 "협동조합 회원과 비회원의 경영성과를 비교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동조합 회원이 수익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기여도가 비회원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내년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역사가 60년

이 되는데, 앞으로 신산업분야 조직화 등 산업변화에 업종 구성 변화도 모색하고, 협동조합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익산농협, 수능 대박 기원

참쌀떡 네이버 쇼핑 완판

익산농협은 네이버 쇼핑IVE에서 진행한 수능대박 합격기원 떡 참쌀떡을 완판했다.

10일 익산농협에 따르면, 익산농협이 판매한 참쌀떡은 국내산 쌀을 활용, 수확생 식물용으로 준비했다.

판매된 참쌀떡은 500상자 분량이다. 익산농협은 완판을 기념해 지역의 8개 고등학교 수험생을 위해 참쌀떡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마련해 수험생 사기 진작과 농가 소득 향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조합장은 "익산농협 떡 방앗간 설립취지는 조합원이 생산한 쌀소비 촉진과 쌀, 흑미, 팥 등 국산 농산물 소비를 위한 것"이라며 "익산농협 하면 떡!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전국에서 제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판매, 농협 본연 사업... 든든한 보금자리 되도록 최선"

김봉학 익산원에농협 조합장 11월 '함께하는 조합장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익산원에농협 김봉학 조합장에게 농협중앙회의 11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여했다.

함께하는 조합장상은 농협이름 확산과 함께하는 농협 구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1118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경제사업, 계통구매, 도농상생 및 창의적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월 2~3명을 선정·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봉학 조합장은 2008년 7월 취임 이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를 4회(06년, 15년, 17년, 19년) 수상하는 등 익산원에농협을 전국 최우수 농협으로 발돋움 하는데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익산원에농협은 경제사업에 많은 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0일 중앙본부 대강당에서 정례회를 열고 익산원에농협 김봉학 조합장에게 농협중앙회의 11월 '함께하는 조합장상'을 수여했다.

자와 인재 양성 조직화 구성,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농산물공관장 산지유통센터(APC), 푸드지원센터(급식센터), 하나마트, 로컬푸드직매장(2개소), 온라인쇼핑몰(농협이마켓)까지 판매사업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판매사업만큼은 매년 1,400억원 이상의 실적을 달성하며 판매농협으로써의 진정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농협 본연의 사업은 판매사업이므로 조합원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농협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미래를 꿈꾼다"며 "함께하는 100년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이 진정으로 조합원과 소비자·고객에게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 운영

서부지방산림청은 2021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산불피해 최소화 및 산불 사전차단을 위해 산림 드론을 활용한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부청은 산림드론 감시단 12개조를 편성, 국·사유림을 통한 감시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행위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등을 집중 감시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놓은 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는 자,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이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장형 서부청장은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